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4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3월 2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2017년 투쟁계획 확정!

지부 임시대대 열려

지부가 1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대의원 111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지부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노동법 개정 투쟁, 구조조정 대응 투쟁,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임시대대 사전대회에서는 장기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던 금왕농협 분회 동지들이 후원주점을 홍보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또 성평등교육이 진행되어 대의원 동지들의 성평등 인식을 높였다.

노동법 개정!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올해 지부 투쟁의 핵심은 노동법 개정,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이다. 복수노조법을 이용한 자본의 노조파괴 공세는 노동3권을 무력화했다.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노조와 교섭은 외면하고 얼마든지 어용노조를 키울 수 있다. 독소조항인 창구단일화는 꼭 폐기돼야 한다. 또한 최근 사업장

곳곳에서 구조조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다양하게 치고 들어오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구조조정과 더불어 닥쳐올 임금동결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투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산시켜 사업장 임금인상 투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지부를 중심으로 하나된 힘은 사업장 투쟁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힘으로 전체 정세를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2017년 투쟁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자. 단결된 투쟁을 통해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자!

2017년 지부교섭 요구안

1. 임금인상안

기본급 154,883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를 정액 인상한다.

2.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안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3.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신청인, 피신청인, 피의자, 피고인 등으로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단,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투표시간을 인정한다.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으로 쉰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별도 요구안

* 이번주 일정 *

■ 열사 양재동 농성

3/21(화) 양재동 현대차본사

■ 유성지회 기자회견

3/21(화) 14:00 대법원 앞

■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충북본부 3/22(수) 14:00

대전본부 3/23(목) 16:00

■ 공단 집중선전전

3/23(목) 06:30 청주 성모병원

3/23(목) 07:00 대전 한타 앞

3/23(목) 07:00 음성 Y&T 앞